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역량 탐색: 샤론 최 통역 유튜브 동영상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리(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비야흐로 인공지능이 모든 화두를 잠식하고 있는 요즘,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통번역사 직업군이 AI 적용 가능성 점수(AI applicability score)가 가장 높은 직업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Tomlinson, K. et al., 2025). AI 적용 가능성이란 AI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다수의 언론 등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가 유력한 직업으로 꽤 오래전부터 통번역사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다. 또 한편에선 “AI에 밥그릇 뺏길 줄 알았는데... 통번역 업계 오히려 더 호황”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고, 통역 실무 현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국내 통역사들의 설문조사 연구 결과(이주리아, 이주연 외, 2025)도 발표되면서 현실과 예측 간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며 안도의 한

1) 이호준. (2025. 5. 26). AI에 밥그릇 뺏길 줄 알았는데... 통번역 업계 오히려 더 호황. 매일 경제.

숨을 내쉬려던 찰나, MS 연구소가 발표한 직업별 AI 적용 가능성 점수 순위는 그동안의 추측성 보도 일변도에서 20만 건의 코파일럿(Copilot)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충격을 안겨준다. 다만 해당 결과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고서의 순위도, 언론의 보도 내용도, 통역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모두 현시점에서 공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보도나 연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AI가 통번역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예의 주시하면서 AI 시대에 부합하는 통역사의 역할 다변화, 통역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통역 보조 도구의 개발, 미래지향적인 교과과정의 개편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AI의 발전과 더불어 다수의 연구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AI와 인간 통역의 조화로운 공존과 협업을 강조하지만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통역의 속도, 생산성, 정확성, 비용 편익 대비 인간 통역사는 과연 어떤 강점을 발휘하며 AI 통역과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지 혹은 인간 통역사의 부가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에 달린 댓글 분석을 통해 통역이라는 행위에 대해 일반 수용자가 갖는 인식 및 기대와 더불어 대중들의 찬사 속에 드러나는 인간 통역사가 갖는 강점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역의 역량으로서 구체화하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AI 대비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분석하는 데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 댓글을 주목하게 된 배경은 첫째,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 댓글 내용 중 그녀의 통역이 AI 통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훌륭하다는 다수의 댓글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인간 통역사가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인지 분석한다면 AI 통역 대비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규명하고

2) 본 연구에서 AI 통역은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기술 도구를 이용하여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자동 변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현시점에서 기계 통역(machine interpreting)에 사용되는 기술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임을 전제할 때 기계 통역과 AI 통역을 동의어로 간주한다.

이를 통역 역량으로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이 영상을 보고 ai가 통번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역사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이유”

“기술 발전으로 통역사가 설 자리가 조만간 사라질거라 생각했는데 사론 최님 보니까 절대 조만간에 사라지진 않겠군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멋진 본보기 예시 (※ 구글번역기, 파파고)”

“ai 통역 개발하던 회사는 이제 거의 다 뺐다고 생각했다가 완전 멘붕됐을거 같다.”

둘째, 실증적 연구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인데, 유튜브에 ‘사론 최 통역’으로 검색한 결과 327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동영상부터 그녀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예능 동영상 및 짧은 길이의 숏폼에 이르기까지 콘텐츠가 다양하고, 댓글 수도 조회 수 100만 이상 기준 적게는 약 500개에서 많게는 약 2000개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여 양적 및 질적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유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소셜미디어 2위³⁾, 동영상 앱 1위⁴⁾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셜미디어 1위인 카카오톡이 주로 가족과 친구, 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위한 용도라면 유튜브의 경우 관심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목적 외에 뉴스와 시사 정보를 얻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고 이용자의 뉴스 등 정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유튜브는 현재 명실공히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 및 댓글 등의 형식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공론화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유튜브 댓글 분석은 현재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과 소비자의 인식과 평가 및 반응 등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2. 3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4) 최원희. (2025. 04. 01.). 동영상 앱, 한국인 94% 사용...유튜브 사용시간 점유율 67%. Platum.

5)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2. 3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있으며 근래 통역 관련 연구에서도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활용되고 있다⁶⁾.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의 통역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및 기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 통역사가 강점을 갖는 통역 역량을 제안하는 데 샤론 최의 유튜브 통역 동영상 댓글 분석이 연구 대상과 방법론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통역 역량에 대한 연구와 제안은 대부분 통역학계 연구자나 전문가⁷⁾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통역품질에 대한 평가 역시 정확성과 충실성 및 완결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Pöchhacker, 2022, p. 176). 다만 배문정(2024)과 최문선(2018)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역을 듣는 청중, 즉 사용자들은 통역사들이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정확성이나 충실성보다는 언어 외적 요소인 목소리, 안정성, 상호작용 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역사와 시용자가 생각하는 품질의 기준이 다르다면 통역사의 역량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AI 시대 인간 통역에서 AI 자동 통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지는 시기에 사용자의 선호와 기대 및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통역 역량 구성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찬사와 관심을 받은 샤론 최의 통역 사례와 이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와 반응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대중들이 선호하고 높이 평가하는 통역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부각하는 통역 역량으로서 추출 및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장 이론적 배경에서 AI 시대의 통역, 통역역량, 통역 관련 소셜미디어 대상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3장 연구방법에서는 댓글 텍스트 분석에 적용된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질적 분석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4장에서는 분석결과 제시 및 관련 논의와 제안을 기술한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6) 2장 이론적 배경 중 2.3절 통역 관련 소셜미디어 대상 선행연구 참조.

7) 2장 이론적 배경 중 2.2절 통역 역량 선행연구 참조.

2. 이론적 배경

2.1 AI 시대의 통역

AI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통역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던 주요 이슈는 통역이라는 직업의 AI 대체론이다(김미경, 2023; 박건형, 조재희 외, 2017; 이정민, 2025).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은 미국 사용자와 자사의 코파일럿 챗봇(Bing Copilot) 간에 이루어진 20만 건의 익명화된 대화를 기반으로, 생성형 AI와 LLM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직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역사와 번역가, 역사학자, 작가를 포함해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업무가 중심인 직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omlinson, K. et al., 2025). AI의 발전과 더불어 통역의 직업적 위상이 대외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통역학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AI 시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계 통역(AI 통역)의 정의와 기술 발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판티누올리(Fantinuoli, 2025, p. 210)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실시간 의사소통 환경에서 한 언어의 구어를 다른 언어로 자동 변환하는 과정”을 컴퓨터 공학계에서는 ‘음성 - 음성번역(speech to speech translation)’, 통번역학계에서는 ‘기계 통역(machine interpreting)’이라 지칭하고 기계통역은 ‘음성 - 음성번역(speech to speech translation)’ 중에서도 실시간 라이브 환경에서 작동하는 ‘즉시성(immediately)’의 특징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판티누올리(2025, p. 210)는 기계통역에 내재된 음성 번역이 갖는 복잡성과 실시간 구현이 요구되는 즉시성의 특징으로 인해 기계 통역은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과 성능의 한계를 갖게 된다고 언급한다. 우선 언어적 측면에서는 구어가 갖는 비유창성, 문법적 비완결성, 부정확한 발음,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유명사에 대한 기계통역의 인식을 저하, 발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언어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의 한계와 오류 등(Fantinuoli, 2025, p. 215)을 언급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언어적 한계는 많은 부분 AI가 인간의 구어 음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오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음성 합성 또는 변환 과정에서 청자의

이해 용이성을 낮추는 기계 특유의 전달력 저하(감정 이입과 강약 및 속도 조절이 없는 단조로운 억양 등)도 언어적 한계 요인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 문화와 의사소통 차원의 한계는 기계 통역의 경우 특정 문화에만 존재하는 관용구, 속어, 문화적 참조를 포함하여 아이러니와 풍자 등 문화적 맥락 의존성이 높은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과 다양한 배경 정보 처리의 어려움으로 맥락에 기반하지 않은 통역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지적하였다(Fantinuoli, 2025, p. 216).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적 한계로서 음성 번역 및 통역의 지연(latency)과 다수의 사용자 및 다언어 지원과 일관된 품질 제공을 위한 기계 통역 인프라의 안정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기계통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문화적, 기술적 한계 외에도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한 윤리적 한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자동통역 솔루션이 갖는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과 AI의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 통역 결과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 및 품질 보장의 어려움이다(Fantinuoli, 2025, p. 219).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기존의 통역 윤리에서 중시되고 있는 기밀 보호, 중립성, 전문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기계 통역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이면에 매우 근본적인 윤리적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통역 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연구(김혜림, 2024; 진실희, 2024a; 진실희, 2024b; 鄧軍濤과 許勉君 외, 2021; Guo, M. et al., 2025), CAI(computer assisted interpreting)와 실무 활용에 대한 연구(최문선, 2022; 孫海琴과 李可欣 외, 2021), 통역사의 AI 활용과 인식에 대한 연구(이주리에, 이주연 외, 2025; 이주리에, 진실희 외, 2024), AI 통역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 연구(배문정, 2023), AI 시대 통역 유형의 새로운 재편 필요성에 대한 연구(최문선, 2025) 등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이 신속히 발전하는 AI 통역의 기술적 향상과 한계를 분석하고, AI 관련 기술과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통역 실무의 생산성과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가운데, AI와 효과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통역의 주체인 인간 통역사 혹은 AI 통역과의 대척점에서 인간 통역사가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비교 우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AI와 최적화된 협업을 수행하고, AI 통역의 등장과 함께 역으로 주목받는 차별화된 인간 통역사의 역량 발전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통역 역량

인간 통역사의 차별화된 역량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통역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인지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통역학자 뢰히하커(Pöchhacker, 2022, p. 171)는 그의 저서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에서 통역사의 역량에 대해 1930년대부터 시작된 관련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인적 자질과 능력(personal qualities and abilities)으로서 인지적 자질(지능, 직관, 기억력), 도덕 및 정서적 자질(재치, 침착함, 신중함 등), 신체적 자질(체력, 긴장 조절), 지적 자질(언어 숙련도와 전문지식), 정신적 자질(판단력, 주의집중력 등)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였다. 또한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special skills and expertise)을 언급하며 이중 언어능력, 과제협상능력(작업 조건 협상)과 주제별 지식 습득을 위한 전략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능력과 기술들이 전문성(expertise) 연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명제적(declarative) 지식을 넘어 상황에 맞는 유연성과 맥락에 대한 민감성 전략이 자동화되어 직관과 암묵적(절차적) 지식을 활용한다고 언급하였다(Pöchhacker, 2022, p. 173). 알블 미카사(Albl-Mikasa, M., 2013, pp. 17-33)는 전문 통역사의 역량과 관련하여 경력 15년 이상 회의통역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앞서 뢰히하커(2022, p. 173)가 주장한 통역 역량의 전문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발표한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실무 통역사들이 생각하는 전문적인 통역 역량은 언어역량(모국어와 외국어), 통역 역량(동시통역과 순차통역에 필요한 전환 및 노트테이킹 스킬, 전문 분야 지식과 용어), 비즈니스 역량(고객 관리, 프리랜서 비즈니스 운영, 상황 대처 및 맥락 적응)이며, 통역 역량의 함양은 체계적인 학습을 거쳐 현장 실무 기반의 경험 축적, 메타 인지적 학습, 자기 주도적 성찰 기반의 작업 환경과 수행 기준 설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화하며 이렇게 얻은 노하우(savoir-faire)는 전문 통역사에게 있어 언어 및 전문분야 지

식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통역 전문 역량은 언어와 통역 스킬, 전문 지식에 대한 명제적 지식의 학습을 넘어 현장 실무 기반의 경험 축적과 직관의 발달을 통해 질차적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통역사의 역량에 대한 비교적 전통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르데레르(Lederer, 1999)는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4대 기둥(four pillar)으로 1. 출발어 구사력, 2. 모국어 구사력, 3. 배경지식과 주제지식, 4. 통역, 번역 방법론 지식(정호정, 2007, p. 46에서 인용됨)을 언급하였고, 쿠스마울(Kußmaul 1995)과 노르트(Nord, 1991, 1995, 1996)는 통번역사의 요건으로 1. 양대언어구사력, 2. 지식기반, 3. 통번역 방법론에 대한 지식, 4. 양대문화중개능력을 제시하였다(정호정, 2007, p. 49에서 인용됨). 르데레르와 쿠스마울 등이 언급한 위의 요소들은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비교적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통역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이는 역할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히하커(2022, p. 176)에 따르면 통역사들은 역사적으로 메신저, 안내자, 협상가,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만 20세기 들어 통역이 본격 직업화하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충실하고(faithful), 정확하며(accurate), 완전하게(complete) 발화를 재현하는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도관(conduit)’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직역 중심의 ‘기계번역’과 같은 역할이 기대되었고 통역사는 비가시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의료, 법정, 난민 통역 등 커뮤니티통역을 중심으로 언어 및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고려한 더 넓고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회의통역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츠비셴베르거(Zwischenberger, 2011)가 AIIC 회원을 대상으로 통역사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을 조사한 결과, 총 704명의 응답자 중 다수가 의사소통 촉진자(communication facilitator)와 중재자(mediator)라는 역할에 공감하였으며, 원문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갖는 동시에 문화적 참조를 위한 설명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화자의 어조를 반영하여 동일한 의사소통 효과(communicative effect)를 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Pöchhacker, 2022, pp. 179-180에서

인용됨).

AI 통역 대비 인간 통역사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관점에서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언어적 의미 차원의 등가 실현을 위한 기계적인 재현과 중립성 및 비가시성에 기댄 역할 그리고 명제적 지식에 기반한 통역 수행은 AI 통역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통역사는 의사소통 효과의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언어적 의미와 문화적 맥락에 최적화된 중재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 통역 스킬, 전문 분야 지식 등의 명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통적 역량에 기반한 절차적 지식과 실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실제 댓글 텍스트의 양적 및 질적 분석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3 통역 관련 소셜미디어 대상 연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소셜미디어는 현재 가장 많은 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성 및 공유되는 장이 되었다. 그 중 유튜브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로 한국인 중 94%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동영상 앱 중 사용시간 점유율 67.4%로 명실공히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였다(최원희, 2025). 더불어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 기능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국내 통역학계에서도 온라인 공간과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통역사에 대한 인식 혹은 통역사의 SNS 게시물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권상미, 2020a; 권상미, 2020b; 권상미, 2023a; 권상미, 2023b; 권상미와 정철자, 2023c; 배소연, 2020). 다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연구자가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연구 주제의 경우 통역사에 대한 대중 인식 및 콘텐츠 분석 관련 연구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관련 동영상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고, 높은 조회 수와 다량의 댓글이 생성된 사론 최의 유튜브 통역 동영상 댓글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

아 텍스트 마이닝과 질적 분석을 적용하여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역 역량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샤론 최의 유튜브 통역 동영상의 경우 권상미(2020a)가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의 분석 대상은 ‘봉준호 수상소감’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선정된 동영상이고, 본 연구는 ‘샤론 최 통역’을 검색어로 선정하여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및 샤론 최 본인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 등 동영상이 포함되어 총 8편의 분석 대상 동영상 중 두 편만 권상미(2020a)의 분석 대상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연구의 중점이 권상미의 선행연구의 경우 통역사 샤론 최에 대한 수용자 인식에 있고, 본 연구는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차별화된 역량에 중점을 두고 정량 및 정성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간 통역사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통역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분석 데이터와 연구 내용 및 결과 모두 차이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텍스트 마이닝의 구체적인 방법론 적용에서 권상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 댓글에 나타난 일반 대중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AI 통역과 차별화되는 인간 통역사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댓글 데이터로부터 통역 역량 관련 키워드, 연관 단어, 주제 등을 추출하고, 더불어 댓글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AI 통역과 차별화되는 인간 통역사의 역량을 분석 및 도출하고자 한다.

표 1
연구방법 단계별 내용

단계	내용	
1단계	데이터 선정과 수집	샤론 최 통역 관련 조회수 100만 이상 총 8편의 동영상에 달린 통역 및 통역사 관련 댓글 수집.
2단계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 빈도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분석,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연관어 분석, 토픽모델링(LDA)
3단계	질적 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댓글 원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키워드와 주제가 출현하는 구체적 맥락을 해석하고 의미를 보완함

3.1 데이터 선정과 수집

본 연구는 샤론 최의 통역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튜브에는 샤론 최의 통역 관련하여 그녀의 통역 장면이 담긴 20~30초 내외의 짧은 쇼츠 동영상에서부터 그녀가 직접 출연한 인터뷰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유형과 길이의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검색 창에서 ‘샤론 최 통역’을 검색한 뒤 2025년 5월 23일 기준 조회 수 100만 이상⁸⁾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조회 수를 분석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게시물의 조회 수와 댓글 수가 상관관계를 갖는 특성⁹⁾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양의 댓글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 중 조회수 10만 이상의 동영상은 1% 미만¹⁰⁾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조회수 100만 이상의 동영상은 전체 동영상 조회 수

8) 조회 수 100만 이상의 동영상 중 댓글 내용이 봉준호 감독에 대한 내용이 많은 동영상은 제외하였다.

9) 챗조폴로 외(Chatzopoulou et al.), 2010, 권상미, 2020a, p. 9에서 인용됨.

10) The state of YouTube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에 게시된 전체 동영상 중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이 2018년도 0.64%, 2019년도에 0.7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tassen, 2020)

기준 초상위권에 위치하며, 유튜브의 경우 소수 상위 영상에 시청이 극단적으로 몰리는 파레토형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량의 댓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Cha, M. & Kwak, H. et al., 2009). 그 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동영상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동영상 목록

번호	게시일	동영상 타이틀	조회 수(만)	댓글 수(개)
1	2020. 2. 10.	기생충 웃음 통역 모음 / 송강호가 봉준호 놀리는걸 더 심하게 통역함 / Sharon Choi 최성재 인터뷰, 수상 소감 [최신]	327	848
2	2020. 1. 27.	반체제인사로 몰린 기생충 봉준호감독 Sharon Choi 통역사가 구제!?	212	1965
3	2020. 1. 27.	가장 어렵다는 한국어 유머 통역하기 (기생충 최성재 Sharon Choi 유머 통역 모음)	184	1064
4	2020. 1. 30.	'기생충'봉준호감독머리속까지침투?통역머신 샤론최(최성재) BongJoon-Ho's Interpreter SharonChoi	152	853
5	2020. 2. 17.	샤론 최 없었으면 통역 어쩔뻘... 봉준호 감독이 의존한 결정적 5장면 Sharon Choi's Interpretation 5 Scenes	148	830
6	2020. 1. 22.	기생충 흥행에 샤론 최 통역사가 주목받는 이유	142	530
7	2021. 7. 31.	[#유퀴즈온더블럭]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 통역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샤론최의 노하우	120	806
8	2020. 2. 12.	농담에 누앙스까지 척척 ... 샤론 최가 최고의 통역사인 10가지 이유 Sharon Choi's 10 Best Moments (Feat. 봉준호)	107	741

위와 같이 총 8편의 동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유튜브 코멘트 다운로더(youtube_comment_downloader)를 사용하여 총 7637개의 댓글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다만 댓글 중 영문과 이모티콘으로만 입력되어 한글 기준 텍스트 마이닝이 불가능한 댓글은 모두 삭제하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역사 및 통역 역량과 전혀 관련 없는 봉준호 감독 및 영화에 대한 댓글, 샤론 최의 외모 및 출신학교 관련 댓글, 통역과 관련 없는 특정 이슈에 대한 대댓글을 통한 논쟁, 동영상 제작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평가 등 통역과 무관한 댓글을 모두 삭제하는 데이터 클렌징 과정을 거쳐 최종 3762개의 댓글이 수집되었다.

3.2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란 말 그대로 텍스트에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연구영역으로 일련의 텍스트 분석 및 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Hearst, 1999; Feldman & Sanger, 2007, 송민, 2017, p. 2에서 인용됨).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과 달리 이메일, 뉴스 기사,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글과 포스트 등 자연어로 쓰여진 비구조화된 특징을 갖는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송민, 2017, p. 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매체의 급격한 발달로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비정형 텍스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추세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 유튜브 댓글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높이 평가하는 통역 역량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한 역량의 요소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키워드 빈도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분석,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연관어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체 과정의 수행은 구글 코랩(Colab)을 활용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필요한 코드 작성은 챗지피티(ChatGPT)와 구글 제미니(Gemini)의 도움을 받았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은 키워드 빈도 분석이다. 키워드 빈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전체적인 관심사와 주제 파악을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내용 분석을 통해 통역과 관련 없는 댓글

을 제거하여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유튜브 댓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댓글 텍스트의 경향과 특징을 탐색하고 댓글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통역의 속성, 특징, 행위 등과 관련된 단어의 빈도 파악을 통해 대중들의 통역사 및 통역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가장 직관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행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판다스(Pandas)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고 파이썬(Python)의 코엔엘파이(KoNLPy) 패키지 내 오케이티(Okt)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고 댓글 데이터로부터 명사를 추출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특수문자 제거, 불용어 필터링(ㅋㅋ, ㅋㅋ, 특수문자 등) 및 한 글자 단어(‘것’, ‘이’, ‘그’, ‘다’ 등)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단어는 컬렉션즈 카운터(Collections.counter) 모듈을 이용해 출현 빈도를 집계하였다.

다음으로 동시 출현(co-occurrence) 단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은 두 개의 단어가 주어진 문헌의 분석 단위 안에서 함께 출현하는 횟수를 기반으로 단어의 연관성 및 문헌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송민, 2017, p. 100). 본 논문에서는 전체 댓글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쌍 및 본 연구의 핵심어인 ‘통역’이라는 단어와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의 파악을 위해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형태소 분석과 명사 중심의 핵심어 추출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각 댓글을 문맥 단위로 간주하고 이터툴즈(Itertools) 라이브러리의 콤비네이션즈(Combinations)모델을 이용하여 단어 쌍을 생성한 뒤, 컬렉션즈 디폴트딕트(Collections.defaultdict)를 활용하여 단어 쌍의 동시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앞서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고빈도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하고, 동시 출현과 연관어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적 연결구조 탐색을 위해 활용되며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도 불린다. 기존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해 개발된 각종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언어 텍스트의 의미를 네트워크로 모델링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이수상, 2014, p. 53). 의미 네트워크에서는 언어 텍스트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

는 단어(키워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가 되고, 단어(키워드)들 간의 연결관계가 ‘링크’가 된다(이수상, 2014, p. 53). 본 연구에서는 게피(Gephi)를 활용하여 ‘통역’이라는 노드와 연결된 단어들의 관계(링크)를 기반으로 의미 네트워크를 모델링하고 중심성(centrality)을 분석하였는데, 키워드와의 연결 빈도를 보여주는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의미 집단 사이의 연결 성을 보여주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주요 키워드와의 연결 강도를 보여주는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분석하여 전체 텍스트의 핵심 노드를 식별하고, 정보의 흐름과 경로를 파악하며,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수상, 2014, p. 53-57).

그 외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연관어 분석은 특정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와 의미적 맥락 유사도가 높은 단어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추출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젠심(Gensim) 라이브러리의 워드투벡(Word2Vec)모델을 활용하여 단어 임베딩을 생성하고 단어의 의미적 유사성(semantic similarity)을 벡터 공간에서 학습하여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기준으로 중심 단어로 설정된 ‘통역’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숨겨져 있는 주제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적 추론 알고리즘인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송민, 2017, p.113). 토픽모델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으로 기본적인 전제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혼합물이며, 각각의 주제는 다양한 단어의 확률 분포로 표현된다는 것이다(송민, 2017, p.115). LDA는 이미 관찰된 변수를 통해 주제분포와 주제별 특정 단어를 생성할 확률을 계산하여 토픽을 생성하는 사후 추론방법이다(송민, 2017, p.113).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 명사만 추출한 댓글 리스트를 대상으로 불용어 제거 및 한글자 필터링을 완료한 후 젠심의 딕셔너리(Dictionary) 객체를 생성하였다. 모델 학습은 젠심의 엘디에이모델(LdaModel) 클래스를 이용해 수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토픽 수 및 연관 단어 수량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픽 3개, 토픽의 연관 단어는 30개로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토픽

간 분포와 단어별 기여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파이라디아비스(pyLDAvis)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시각화도 병행하였다.

3.3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정량적 분석 외에 질적인 내용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정량적 분석결과와 의미를 보완 및 심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댓글 텍스트의 전체적인 경향과 주제 파악을 위한 키워드 분석, ‘통역’이라는 키워드와의 물리적 인접성 파악을 위한 동시 출현 단어 분석, 의미적 연관성 파악을 위한 연관어 분석 등을 통해 댓글 텍스트의 핵심적인 점(point)을 도출하였다면, 의미적 연결 구조 탐색 및 연결의 강도와 중요도 파악을 위한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전체 댓글 텍스트의 잠재 주제 구조 파악을 위한 토픽모델링을 통해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의 연결 관계 및 주요 주제 축을 도출하여 개별적인 점을 선(line)으로 연결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댓글 원문에 대한 질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키워드와 주제가 도출된 구체적 맥락을 해석하고 의미를 보완하였다. 이는 동일한 키워드라 하더라도 담화 맥락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의미를 댓글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텍스트 마이닝이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점들을 추출하고 선을 연결하는 과정이었다면, 질적 내용 분석은 그 점들을 맥락적으로 연결하여 면(plane)을 구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적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텍스트의 양적 구조와 질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앞서 상술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한 텍스트 마이닝 및 질적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4.1 텍스트 마이닝과 질적 분석결과

4.1.1 키워드 빈도 분석결과

전체 텍스트의 핵심 키워드 및 주제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키워드 빈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1	통역	1393
2	영어	674
3	통역사	667
4	감독	663
5	샤론	541
6	사람	412
7	번역	319
8	영화	311
9	언어	297
10	생각	278
11	봉준호	258
12	전달	226
13	한국어	206
14	표현	191
15	천재	189
16	능력	186
17	단어	180
18	한국	176
19	한국말	163
20	그냥	156

단어 빈도 분석 상위 30개 단어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단어는 ‘통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댓글 텍스트가 1차적으로

통역 관련 내용만으로 정제된 특성에 기반한 것이며, 동시에 댓글 텍스트의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통역’과의 높은 관련성과 비중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 할 수 있겠다. 그 외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영어’는 샤론 최의 영어 발음, 발성, 어휘력, 전문용어, 표현 등 뛰어난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와 찬사 및 감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지식과 이해력, 순발력, 기억력 등 다른 능력도 출중하다는 내용¹¹⁾, 국내 영어 교육에 대한 성찰¹²⁾, 영어 공부 동기부여 등의 댓글 내용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라는 고빈도 키워드의 맥락에는 뛰어난 영어실력에 대한 감탄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통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 외’에 배경지식, 이해력, 순발력, 상황 판단력, 논리적 사고, 문화 이해 등 다양한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이 함께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사람’은 주로 샤론 최를 평가하고 칭찬할 때 그녀를 지칭하는 명사로 등장하고, 일부는 댓글을 작성하는 본인을 지칭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저도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이고 많은 통역사 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봤지만 샤론 최는 정말이지 최고입니다.”와 같은 댓글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번역’의 경우 “저 긴 문장을 기억해서 완벽하게 영어로 번역한다는게 놀랍고 너무 멋지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어를 전달하는 ‘통역’을 문어를 전달하는 ‘번역’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며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영화들 이분이 번역하면 영화 재미가 배가 될 듯...”과 같이 샤론 최가 영화 분야 통역을 잘하니 영화 자막의 번역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통역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눈에 띄는 키워드는 ‘언어’이다. 상위 30개 키워드 중 ‘언어’는 9위이나 관련 키워드인 ‘영어’(2위), ‘한국어’(13위)와 ‘한국말’(19위)의 빈도수를 합하면 총 1340회로 1위인 ‘통역’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샤론 최의 통역을 평가 및 기술하는

11) 댓글 사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국어실력 상상력 논리력 완전 종합적인 능력”

12) 댓글 사례: “지금 어른들 및 이십대들도 영어 한평생 배워도 말을 못함. 이걸 한국교육이 이상한 것임”

데 있어 뛰어난 외국어와 모국어를 구사하는 언어능력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와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분석해 본 결과 ‘능력’(49회), ‘천재’(48회), ‘센스’(39회), ‘재능’(37회), ‘이해’(32회) ‘감각’(31회) 등으로 나타나 대중들은 통역 역량으로서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뛰어난 언어적 재능 및 감각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나란히 10위, 11위, 12위를 차지한 ‘생각’, ‘봉준호’, ‘전달’로 사론 최가 봉준호 감독의 통역 수행 시 언어적 의미와 정보 전달을 넘어 그의 영화 철학과 가치관 및 세계관이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생각’을 잘 전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그 외 ‘생각’이라는 단어는 봉준호 감독의 평소 생각의 깊이에 대한 댓글 내용이나 ‘최성재 통역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통역은 그 중 압권임’과 같이 댓글 작성자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표현으로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다¹⁴⁾.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표현’과 ‘단어’로 통역사가 이해한 내용을 언어를 매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표현’의 경우,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정확한 표현”, “한국적인 표현”, “간결한 표현”, “고급스러운 표현”, “영화에 맞는 표현” 등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 관습 및 오스카 레이스¹⁵⁾에서의 각종 행사 상황 및 사용역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통역을 수행하는 댓글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단어’의 경우 ‘적합’하고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댓글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¹⁶⁾.

13) 댓글 사례: “단지 말만 번역 하는게 아니라 봉준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것 같음”

14) 댓글 사례: “... 봉감독님은 어떻게 저런 답변이 나오는지 평소에도 생각이 깊고 시야도 넓으신 듯”

15)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시즌, 작품을 알리기 위해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

16) 댓글 사례: “단어 선택도 탁월하지만 진짜 간결하게 잘 표현하시는 거 같아요”, “무엇보다 대단한 건 이분의 사용 어휘가 아주 명확하면서 쉬움. 직관적이고 의미가 참 잘 전달되는 어휘와 표현들을 골라서 사용함.”

4.1.2 동시 출현 단어 분석결과

앞서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댓글 텍스트의 주요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였다면 다음으로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핵심 주제어인 ‘통역’¹⁷⁾과 물리적으로 인접하고 의미적으로 밀접한 단어들을 추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통역’과 동시 출현 빈도 높은 상위 2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
1	감독	324
2	영어	255
3	통역사	209
4	샤론	209
5	사람	207
6	진짜	207
7	정말	184
8	영화	146
9	생각	141
10	봉준호	120
11	전달	119
12	언어	115
13	번역	113
14	한국어	94
15	표현	88
16	단어	84
17	능력	80
18	센스	76

- 17) 동시 출현 단어(공기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어를 선정해야 하며, 대상어는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어휘를 말한다. 대상어는 분석 목적에 따라 고빈도 어휘 혹은 문헌의 주제를 반영하는 중요 어휘로 선정할 수 있으며(송민, 2017, p. 100) 본 연구에서는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고빈도 어휘로 추출된 ‘통역’을 대상어로 선정하였음.

18	이해	76
20	한국	69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추출된 고빈도 단어 ‘통역’을 대상어로 선정하여 ‘통역’과 같은 문맥 안에서 동시에 출현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동시 출현 단어와 앞서 키워드 분석의 결과가 많은 부분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센스’(18위)와 ‘이해’(19위)가 동시 출현 단어로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센스’는 통역을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언어적 감각’으로서의 의미 외에 ‘재치 있다’, ‘요점을 잘 파악한다’, ‘위트를 잘 살린다’, ‘유머 감각이 있다’, ‘문맥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및 축약한다’, ‘언어의 디테일을 잘 살린다’, ‘흐름을 안 끊는다’, ‘순발력이 좋다’, ‘상황 판단력이 좋다’, ‘눈치가 빠르다’, ‘현장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말을 조리 있게 한다’, ‘뉘앙스까지 전한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센스’의 사전적 정의는 “일에 대한 감각이나 분별력”¹⁸⁾으로 통역 수행 시 발화의 맥락과 현장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AI 통역 대비 인간 통역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라고 판단된다.

‘이해’는 통역 역량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화화도이며 영화감독을 준비 중인 사론 최가 영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기생충을 포함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통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통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⁹⁾. 흥미로운 것은 댓글 내용 중 사론 최가 봉준호 감독의 발화 내용과 의도 및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통역한다는 것을 ‘뇌 동기화’, ‘뇌 공유’, ‘뇌트위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의 깊은 이해는 그녀가 영화를 전공하는 감독지망생으로 영화 관련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과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기생충 영화팀과 오스카 레이스를 9개월 동

1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19) 댓글 사례: “확실한 건 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역사의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력인 것 같다. 통역하신 단어들 문장들 보면 정말로 영화, 봉준호 감독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짐”

안 함께하면서 수많은 행사와 인터뷰 통역을 통해 누적된 경험에 기반한 특수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만 통역사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는 단어 선택과 정확한 어휘의 사용 및 문장 구성 등 표현의 질적 차원과 의미 전달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전문 통역사는 단순히 백과사전식의 배경지식이 아닌 통역 수행 분야 관련 특화된 전문지식과 이해의 깊이가 요구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4.1.3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앞서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고빈도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하고,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아래 <표 5>와 같이 ‘통역’이라는 키워드와의 연결 빈도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 정도 중심성, 네트워크 의미 집단 간의 중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 매개 중심성, ‘통역’과의 밀접한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위세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연결 정도 중심성이 연결의 양적 측면을 반영한다면 위세 중심성은 중심 키워드와의 연결 강도와 영향력을 반영하여 연결의 질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위세 중심성을 중심으로 댓글 텍스트의 통역 관련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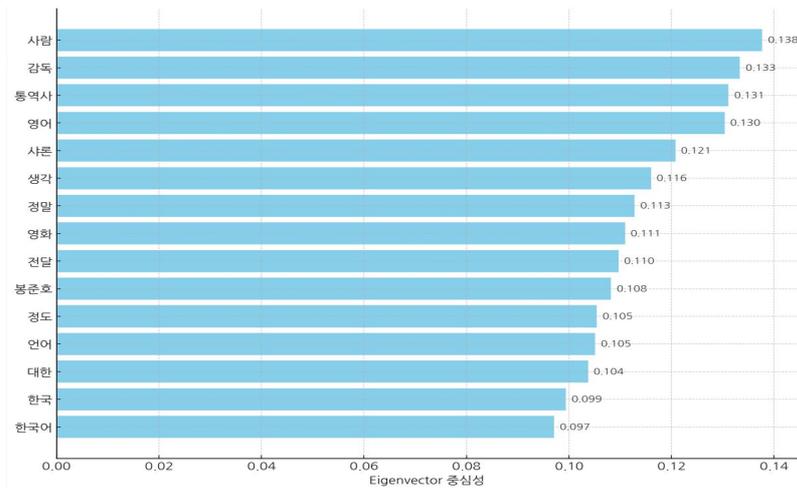
‘통역’ 관련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단어	연결 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사람	0.472872	0.064230	0.137708
감독	0.483630	0.079477	0.133345
통역사	0.451356	0.063100	0.131125
영어	0.465856	0.067349	0.130373
샤론	0.403181	0.057217	0.120756
생각	0.362488	0.037453	0.116011
정말	0.348924	0.038081	0.112802
영화	0.329747	0.027781	0.110960

전달	0.331618	0.025389	0.109656
봉준호	0.302619	0.021939	0.108189
정도	0.273620	0.012831	0.105416
언어	0.306829	0.024048	0.105112
대한	0.254911	0.010137	0.103744
한국	0.272217	0.015042	0.099387
한국어	0.259121	0.014481	0.097111

그림 1

‘통역’ 관련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Eigenvector 기준 상위 15개 중심 단어)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는 ‘사람’, ‘감독’, ‘통역사’, ‘영어’, ‘사론’, ‘생각’, ‘정말’, ‘영화’, ‘전달’, ‘봉준호’, ‘정도’, ‘언어’, ‘대한’, ‘한국’, ‘한국어’ 순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 및 동시출현 빈도 분석결과와 단어 간 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추출된 단어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분석결과로서 등장하지 않은 단어는 ‘정도’, ‘대한’으로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정도’는 “이 정도면 진짜 너 공유... 이심전심의 실사판 같음”, “심지어 전문통역사도 아닌 영화감독분이 저 정도 통역한다는게 대단하죠”와 같이 사론 최의 뛰어난 통역 능력을 표현하는 명사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한’의 경우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더니 그 사례네요.”,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필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 언어에 대한 남다른 능력을 타고난...”과 같이 주로 언어, 영화에 대한 지식, 문화, 영어, 한국어 등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4.1.4 연관어 분석결과

표 6

‘통역’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 분석결과

번호	연관어	연관성
1	생각	0.9997
2	전달	0.9997
3	미국	0.9997
4	한국인	0.9997
5	모습	0.9996
6	느낌	0.9996
7	영화	0.9996
8	언어	0.9996
9	샤론	0.9996
10	실력	0.9996
11	번역	0.9996
12	영어	0.9996
13	통역사	0.9996
14	바로	0.9996
15	표현	0.9996
16	단어	0.9996
17	부분	0.9996
18	센스	0.9996
19	봉준호	0.9996
20	보고	0.9996

앞서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통해 ‘통역’이라는 키워드와의 공출현 빈도

를 중심으로 물리적 인접성이 높은 단어를 확인하였다면, 연관어 분석에서는 ‘통역’이라는 중심어를 기반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통역과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출된 단어는 ‘생각’, ‘전달’, ‘미국’, ‘한국인’으로 그중 본 연구에서는 ‘전달’을 주목하고자 한다. ‘생각’은 앞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고, ‘전달’은 앞서 키워드 분석과 동시 출현 단어 상위 20개에 포함되어 있지만 순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연관어 분석에서는 통역과 의미적 연관성이 가장 높은 4개의 단어 중 하나로 본격적인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댓글 내용 분석결과 사론 최가 통역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 ‘의사’, ‘뜻’ 외에 ‘의도’, ‘감정’, ‘감성’, ‘느낌’, ‘문화’, ‘뉴앙스’, ‘정서’, ‘유머’, ‘위트’, ‘재미’, ‘속뜻’, ‘지식’, ‘문맥’, ‘상황’, ‘분위기’, ‘요점’, ‘핵심’, ‘생각’, ‘디테일’, ‘메시지’, ‘현장의 느낌’, ‘문화 차이’, ‘미묘한 감정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위에 열거된 다양한 명사와 목적어를 통해 ‘무엇(what)’을 전달하는지가 드러난다면, 전달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통해 ‘어떻게(how)’ 전달하는지가 표현되었는데, 주로 ‘정확하게’, ‘그대로’, ‘명확하게’, ‘고스란히’, ‘바로바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쉽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빠짐없이’, ‘가감 없이’, ‘꼼꼼하게’, ‘빈틈없이’, ‘매끄럽게’, ‘명쾌하게’, ‘시원하게’, ‘침착하게’, ‘멋지게’ 등 매우 다양한 부사가 전달을 수식하는 데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²¹⁾. 통역과 의미적 연관성이 높은 ‘전달’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대중들은 사론 최의 통역이 귀로 듣고 눈에 보이는 언어의 표층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

20) 댓글 사례: “통역을 넘어 마음과 뜻을 전하는 전달자라 부르고 싶군요.,” “...현장에서 의사전달은 물론이고 동서양의 문화 차이, 미묘한 감정선, 유머 감각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통역이되나구요...”...문맥이나 상황 분위기까지 전달하는 능력은 앞으로 AI가 백년을 발전해도 저 정도 번역은 못할 듯합니다...”,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게 신기함.,” “대단한 게 한국말을 한국말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언어로 그 뉴앙스까지 전달하는 게 엄청난 재능.”

21) 댓글 사례: “진짜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대단하시다.,” “...요점 잘 파악해서 핵심을 잘 전달할 통역사분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저걸 즉석에서 저렇게 정확하고 느낌까지 살려서 바로바로 전달해주네.,” “한국적인 농담, 문화,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과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의 심층에 내재된 의도와 함의, 어감과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뉘앙스와 느낌, 또한 표정, 몸짓, 손짓 등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과 분위기, 문맥에 내포된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1.5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모델링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잠재적인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통계 기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LDA 모델을 사용하여 상위 3개 토픽과 토픽별 관련성이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본 모델의 응집성 점수(coherence score)는 0.7030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LDA 모델이 추출한 주제에 속한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매우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값을 반영하듯 아래 토픽모델링을 시각화한 그림에서 토픽 1, 2, 3 간 거리가 명확하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토픽 간 거리가 상호 중첩되지 않고 명확하게 분리되어 내용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토픽모델링 과정에서 토픽 수를 조정하고, 토픽별 연관 단어의 수량 조절 및 불용어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토픽모델링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2
토픽 간 거리 지도 및 상위 30개 연관 단어 (토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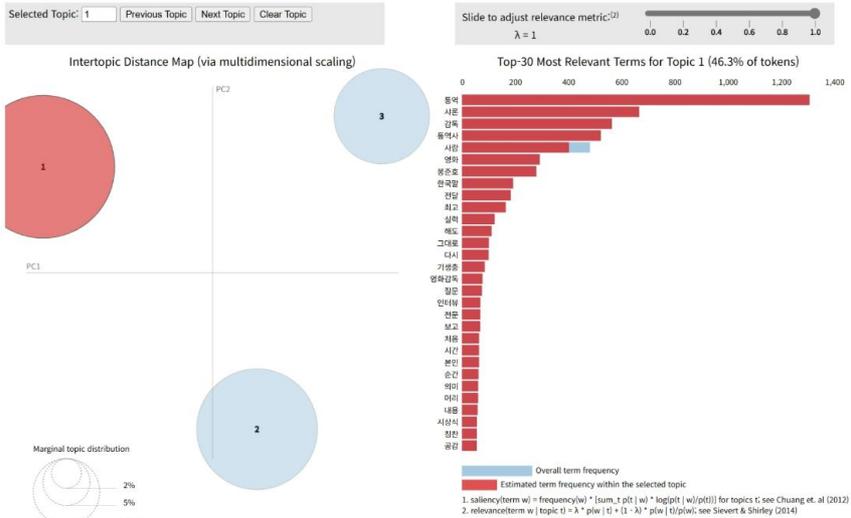


그림 3
토픽 간 거리 지도 및 상위 30개 연관 단어 (토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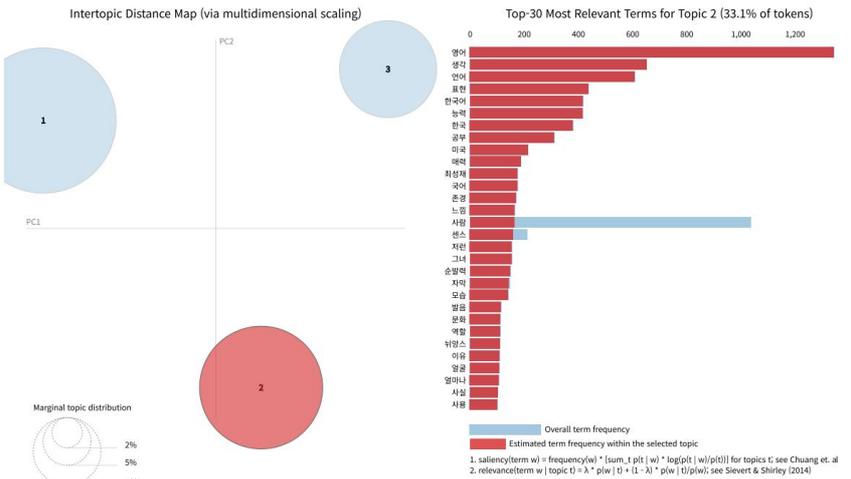


그림 4

토픽 간 거리 지도 및 상위 30개 연관 단어 (토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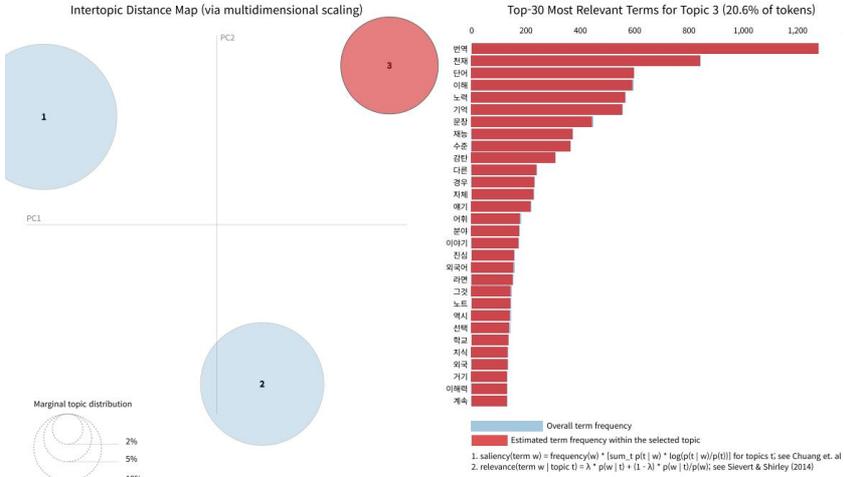


표 7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연관 단어와 토픽 내용

토픽 번호	연관 단어 (상위 30개)	토픽 내용
1	통역, 사론, 감독, 통역사, 사람, 영화, 봉준호, 한국말, 전달, 최고, 실력, 해도, 그대로, 다시, 기생충, 영화감독, 질문, 인터뷰, 전문, 보고, 처음, 시간, 본인, 순간, 의미, 머리, 내용, 시상식, 칭찬, 공감	전문지식과 이해력
2	영어, 생각, 언어, 표현, 한국어, 능력, 한국, 공부, 미국, 매력, 최성재, 국어, 존경, 느낌, 사람, 센스, 저런, 그녀, 순발력, 자막, 모습, 발음, 문화, 역할, 뉘앙스, 이유, 얼굴, 얼마나, 사실, 사용	언어 및 문화 능력과 현장 감각
3	번역, 천재, 단어, 이해, 노력, 기억, 문장, 재능, 수준, 감탄, 다른, 경우, 자체, 얘기, 어휘, 분야, 이야기, 진심, 외국어, 라면, 그것, 노트, 역시, 선택, 학교, 지식, 외국, 거기, 이해력, 계속	이해력과 표현력

토픽모델링은 LDA 등 통계적 기법을 통해 잠재적으로 추출된 토픽과

해당 토픽에 할당된 연관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토픽(주제)의 내용을 해석 및 추론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토픽별로 추출된 30개 연관 단어에 대해 특정 인물(샤론 최, 봉준호 감독, 최성재 등)이나 찬사(최고, 존경, 매력, 천재 등)와 관련된 표현 등은 배제하고 통역 ‘역량’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출된 연관 단어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각 토픽의 내용을 도출하였다.

우선 토픽 1의 30개 연관 단어 중 통역 역량 측면에서 주목한 단어들은 ‘한국말’, ‘전달’, ‘그대로’, ‘다시’, ‘해도’, ‘영화감독’, ‘전문’, ‘본인’, ‘순간’, ‘의미’, ‘내용’이며, 특히 앞서 키워드나 동시 출현 단어 분석 등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해도’, ‘다시’, ‘영화감독’, ‘본인’과 다른 연관 단어들과의 문맥적 연계성에 주목하였다. 단어 중 ‘한국말’, ‘전달’, ‘그대로’, ‘다시’, ‘해도’ 등은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 과정에서 빈번히 발견되었던 문장 패턴인데, 다수의 대중들이 상당수의 댓글에서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다시 말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다”²²⁾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이는 봉준호 감독의 발언 내용이 한번 듣고 이해 가능한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그의 영화에 대한 철학과 세계관 등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의 작품이나 영화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²³⁾. 그러나 샤론 최는 봉감독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짧은 순간에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니 그녀가 전문 통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통역을 보여줬다고 극찬을 하는 댓글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통역 경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통역 실력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녀 본인이 영화감독을 꿈꾸는 영화 전공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상술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토픽 1의 내용은 ‘전문지식과 이해력’으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토픽 2의 연관 단어 중 통역 역량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

22) 댓글 사례: “놀라워!! 나 같으면 한국말로 읊기라고 해도 못 할텐데!!!”

23) 댓글 사례: “통역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봉감독이 한 말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해서 뭐라고 하셨죠? 되물음걸?”

면 우선 언어능력과 관련된 ‘영어’, ‘언어’, ‘국어’, ‘한국어’, ‘표현’, ‘발음’ 등이 눈에 띄며, 출발어와 도착어 국가로서의 ‘한국’과 ‘미국’ 양국이 등장하고, ‘느낌’, ‘문화’, ‘뇌양스’, ‘센스’, ‘순발력’, ‘역할’ 등 문화적 소양 및 현장 감각의 필요성과 관련된 단어들도 연관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상의 연관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토픽 2의 주제를 ‘언어 및 문화 능력과 현장 감각’으로 도출하였다.

토픽 3에서 통역 역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단어는 ‘단어’, ‘이해’, ‘노력’, ‘기억’, ‘문장’, ‘어휘’, ‘분야’, ‘외국어’, ‘노트’, ‘선택’, ‘지식’, ‘이해력’ 등이다. 이 중 특별히 ‘단어’, ‘어휘’, ‘문장’은 언어의 표층적 차원에서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통역의 품질을 결정한다.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다수의 대중이 사론 최의 통역을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단어의 선택, 정확한 어휘(용어)의 사용, 간결한 문장의 구성이 그녀의 통역을 빛나게 만드는 요소임을 언급하였다²⁴). 그 외 노트에 적긴 하나 어떻게 긴 발화를 모두 기억하고 빠짐없이 통역하는지 감탄하며 기억력에 대한 언급을 한 댓글²⁵)이 많았는데, 통역 수행 과정에서 긴 내용을 완결성 있게 전달하는 것은 ‘기억’과 더불어 ‘이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가 잘 되면 긴 발화라도 논리적 체계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며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짧은 발화라 할지라도 논리정연한 통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상의 연관 단어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토픽 3의 내용은 ‘이해력과 표현력’으로 도출하였다.

4.2 분석결과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사론 최 통역 동영상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및 질적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양적 및 질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역 역량의

24) 댓글 사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면서도 정확한 발음과 안정감있는 목소리는 그녀의 통역을 더욱 빛나게 하네요.”, “심플한 단어와 문장으로 어려운 질문과 대답을 명확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해주고 있다.”, “진짜 통역 끝내줍니다. 볼 때마다 저 순간적인 문장 구성력과 어휘력에 감탄합니다.”

25) 댓글 사례: “통역 능력도 대단한데 저 긴말을 어떻게 안 까먹고 다 전달하지? 노트에 뭐라고 적는 건지 넘 궁금하다”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논의 및 정리하고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량은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역 역량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것은 ‘언어’능력이다. 언어능력을 포괄하는 ‘언어’, ‘한국어’, ‘영어’, ‘한국말’ 등의 단어는 키워드 분석, 동시 출현 단어 및 연관어,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토픽모델링 등 모든 텍스트 마이닝 분석결과에서 상위의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역을 위한 언어능력은 모국어와 외국어 능력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통역사에게 필요한 언어능력은 뛰어난 외국어와 모국어 능력뿐 아니라 언어의 표층 차원에서 드러나는 적절한 단어의 선택, 정확한 어휘의 사용, 완결성 있는 문장 구사력과 더불어 언어의 심층에 내재된 의도와 뉘앙스 및 어감 등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해’이다. 이해능력은 언어능력만큼이나 통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 ‘이해’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에서 상위 20개 단어 중 18위를 차지하여 ‘통역’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한 물리적 인접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토픽 1 및 토픽 3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통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 과정에서 봉준호 감독과 샤론 최와의 ‘네트워크’, ‘뇌 공유’설이 언급될 만큼 샤론 최가 봉준호 감독의 발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확하고 빠짐없이 영어로 전달하면서 현지인들의 공감과 인정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감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그녀의 뛰어난 이해력은 언어능력 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영화 전공자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심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통역사에게 ‘이해’가 언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전달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만 알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현상을 인지하는 차원의 수동적인 이해가 아닌 해당 현상의 작동원리, 메커니즘, 논리 구조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봉감독의 한국어 발화를 그대로 한국어로 전달하라고 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다수의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통역사와 같이 국가 간 전문적인 분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경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및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많을수록 이해는 깊어지고 단어, 어휘, 문장과 같은 언어적 표현도 정확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과 ‘센스’이다. ‘전달’과 ‘센스’의 공통점은 상술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적용된 거의 모든 분석결과에서 상위 20개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특히 ‘전달’의 경우 연관어 분석결과에서 ‘통역’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4개 단어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전달’과 ‘센스’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층위를 포괄하며 의사소통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 및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이라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으로 통역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화자 사이에서 서로 생각과 느낌, 정보를 주고 받으며 상호 뜻이 통하도록 돕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원활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통역사의 ‘센스’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역 역량의 관점에서 ‘전달’ 및 ‘센스’를 커뮤니케이션 능력²⁶⁾으로 통합하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기호에 따라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²⁷⁾ 능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언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 관습 및 발화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전달이다. 부정형보다 긍정형 문장을 선호하는 영어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정형 문장을 긍정형으로 전환하거나, 유머나 농담의 경우 내용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출발어의 웃음 포

26) 홍기선(2002, p. 16)은 “커뮤니케이션이란 ‘기호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27)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양식은 1.신체모습(체격, 의상 및 장식), 2.신체 움직임(얼굴 표정, 눈 움직임, 몸짓, 접촉, 신체언어), 3.소리(음색, 어조, 크기 등의 유사언어, 흐느낌, 감탄 등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전 상징적 소리, 대화 순서, 침묵), 4.상황성(시간, 공간, 냄새) 등 크게 네 영역으로 분류된다(홍기선, 2002, pp. 113-128)

인트를 현지의 문화에 맞게 전환하거나 살려내어 궁극적으로 웃음 유발이라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론 최는 이와 같은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여 큰 찬사를 받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필요에 따라 내용 축약과 디테일 살리기가 모두 가능한 유연한 전달능력이다. 질적 분석결과 전달의 방식 관련 ‘정확하게’, ‘그대로’, ‘빠짐없이’와 ‘간결하게’, ‘쉽게’, ‘요점’, ‘핵심’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공존하였다. 이는 통역사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전달의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면에서 ‘전달’과 ‘센스’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적 의미 전달 외에 발화자의 ‘의도’, ‘감정’과 ‘마음’, ‘느낌’, ‘정서’, ‘생각’ 및 ‘문화적 맥락’과 ‘미묘한 감정선’을 전달하고,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의사소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력이 주목할만하다. ‘센스’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알블 미스카(2013)가 통역사의 전문 역량으로서 언어와 전문 분야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노하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종합했을 때 AI 시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통역 대비 인간 통역사가 갖는 강점은 단순한 언어적 의미와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의사소통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 이해와 더불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통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음성 인식과 합성 및 AI 통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의 통역은 상대적으로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방향으로 정보와 지식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주고받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유형의 통역은 AI에 의한 대체가 어려우며 인간 통역사의 강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방적 전달이라 할지라도 클라이언트나 청중의 디테일한 요구 및 다양한 현장의 상황과 필요에 유연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역사라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다양한 의사소통의 유형 및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통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우

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AI 시대 인간 통역사가 강점을 갖는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나, 이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특정 역량만 개발하면 인간 통역사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의 분석결과 및 관련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 이해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 특정 역량만을 선택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분석결과를 통해 언급된 언어, 이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본적으로 고루 갖췄다는 전제하에 인간 통역사에 특화된 하위 역량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하위 역량은 언어능력 중 언어 심층에 내재된 뉘앙스, 어감, 의도, 속뜻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능력이다. 인공지능이 언어 표층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외연의(explicature) 차원의 단어 선택이나 어휘 사용 및 문장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언어 심층에 내재된 뉘앙스, 행간에 숨겨진 맥락과 텍스트화되지 않은 의도 등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AI 자체 알고리즘에 의한 의도와 뉘앙스 등의 추측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AI가 언어 심층의 뉘앙스, 어감, 의도, 속뜻 등의 내포의(implicature)를 추론하기 어려운 이유는 뉘앙스나 의도 등이 발화자의 주관적인 입장과 배경, 행사의 상황과 분위기, 문화적 차이와 감수성,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해능력의 하위 요소 중 전문지식과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통역 역량으로서 배경지식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나 AI 시대에는 일반적인 배경지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통역 내용은 AI에게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향후 통역사에게 의뢰하는 통역은 많은 경우 전문적인 분야로 난이도가 높거나, 의사소통의 결과물로서 협약체결, 비즈니스 협력 등 구체적인 목적 혹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국가 간 정상이나 장관급 회담 및 기업 임원진과 회장단 회의 등 의전과 격식 및 내용 중요도가 높은 국제 외교 및 비즈니스 분야 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난이도와 전문성 및 중요도가 높은 회의에

서 인간 통역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통역사는 이러한 현장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전문지식의 보유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단순히 이해를 증진할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적합한 단어의 선택 및 정확한 어휘의 사용과 완결성 있는 문장 구성 등 언어의 표현 층위에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다행히 AI 기술의 발달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툴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전문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용이해졌다. 따라서 인간 통역사의 전문적인 통역 수행 및 품질 보장을 위해 다양한 AI 툴을 활용한 전문지식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 외 문화 지식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이문화 민감성 등의 문화 역량도 필수적이다.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인 언어는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가 간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통역사의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다. AI 시대 언어와 텍스트 층위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적 맥락과 간극으로 인해 통역사의 완충과 매개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 중개자로서의 통역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도출된 ‘진달’과 ‘센스’에 수렴된다. ‘진달’과 ‘센스’는 양적으로 ‘통역’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통계적으로 높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질적 분석결과 통역의 맥락 안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탁월한 언어적 감각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재치 있게 웃음 포인트를 살려 봉감독과 배우들의 농담을 현지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통역하고,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인터뷰 상황에서 대화의 순서와 흐름이 원활하고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통역하며, 현장 상황의 필요에 따라 때론 발언의 디테일까지 빠짐없이 통역하고 때론 핵심과 요점 중심으로 간결하게 통역하는 등 유연하게 통역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센스’ 있는 통역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통역으로 인해 봉준호 감독의 발언 시간이 1/2로 줄어드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통역하고, 발화자의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를 관찰하여 언어적 의미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그 외 토픽 2의 연관 단어에서 등장하는 ‘발음’과 같이 청각적 요소가 통역 전달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목소리 톤, 풍부한 발성 등 청각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았다. 배문정(2023, p. 608)의 연구에서도 통역 사용자의 인간 통역사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어조’, ‘연사의 강조점 반영’ 등 청각적 요인이 주로 언급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이러한 청각적 요소가 단순히 듣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사언어(paralanguage)’²⁸⁾로서 통역사의 음성, 음량, 어조, 강약과 완급 조절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강조하고 문장의 시작과 종결을 알리는 등 의미를 보완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청자의 입장에서 정보 처리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청각적 요소를 중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인터뷰나 대담 혹은 Q&A 등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대화형 의사소통일 경우, 질문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고, 대답의 내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 혹은 생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역사의 역할에 따라 대화의 흐름이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의사소통이 애초 계획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워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즉 어떤 통역사와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양과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히 의미와 정보 전달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간 통역사만이 수행 가능한 독보적 역할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언어 및 비언어적 감각과 분별력 및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력을 총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 및 촉진하는 능력이라 하겠다. 이렇듯 다양한 현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의사소통 상황에 대처하고 언어 및 비언어적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 전달과 이해를 넘어 인정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통역을 수행하는 것은 AI 통역으로는 대체가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언급이 필요한 것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댓글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과

28) “유사언어는 언어 자체는 아니지만 음색, 어조, 크기 등 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음성적 토대를 말한다” (홍기선, 2002, p. 118).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통역사의 클라이언트를 배려하는 통역 태도²⁹⁾,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는 능력³⁰⁾, 기계적 중립이 아닌 구성원으로서 원팀 정신을 발휘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³¹⁾,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 및 관리하는 능력(Albl-Mikasa, 2013) 등을 포함한다.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으로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통역 역량의 관점에서 아래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8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통역 역량 제안

언어능력	언어(발화) 심층에 내재된 뉘앙스, 어감, 속뜻, 의도 등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능력.	
이해능력	전문분야 및 문화 지식의 축적을 통해 이해와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화적 간극을 매개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논지와 요점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거나, 내용의 디테일까지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을 겸비하여 상황과 필요에 맞게 구사하는 능력. - 언어의 관습적 사용 패턴에 부합하는 전달 및 발화 목적과 기능에 맞는 소통 능력. - 청중의 속성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화의 사용역(register)을 조절하는 능력.
	비언어	- 발화자의 눈빛, 표정과 몸짓, 손짓 등 신체 언어를

- 29) 댓글 사례: “와... 표정을 보아도 얼마나 캐치를 잘 하시는지 알겠고 감동님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도 느껴져요 정말 대처가 좋네요 멋진 거 같아요”
- 30) 배문정(2023, p. 604)에 따르면 AI통역, 자막, 인간 통역사 중 인간 통역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응답에서 ‘통역사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1) 댓글 사례: “...통역사가 그저 말만 딱딱하게 전달하는 걸 많이 봐왔고 통역사는 저렇게 중립적으로 감정 표현 없이 통역해야 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본 통역이 아쉬웠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분은 통역사의 ‘선’을 넘어 현장에서 기생충 팀과 함께 숨쉬고 있네요. 팀워크의 느낌이 들어요. 실력에 조화로움까지 갖추어 아름답습니다...”

		<p>관찰하여 정보뿐 아니라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공간이 부여하는 상황성을 파악하여 복장, 목소리 톤과 음량, 눈맞춤 등 통역 수행 태도를 조절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 안정적인 목소리, 정확한 발음, 편안한 발성, 자연스러운 어조, 연사의 강조점에 따른 강약과 완급 조절 등을 통해 청중의 청각적 피로와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능력. - 신속한 통역을 통해 대화 순서(turn-taking)와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능력.
	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언트를 배려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구축 및 관리하는 능력. - 통역 수행 시 기계적 중립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함께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례적으로 화제를 낳으며 대중의 관심을 모은 샤론 최의 통역 동영상 댓글 분석을 통해 인간 통역사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역 역량 요소 분석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우선 분석 대상은 조회수 100만 이상을 기록한 총 8편의 샤론 최 통역 동영상 댓글이었으며 총 7637개의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댓글 내용 중 외모나 출신학교 등 통역과 관련 없는 내용의 댓글을 삭제하여 최종 3762개의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댓글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어 분석, 의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댓글의 통역 관련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추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구 결과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와 주제어인 점(point)을 확보하고, 의미 관계 구조를 도출하여 선(line)으로 연결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텍스트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통역 역량 언어능력, 이해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제안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 결과로서의 면(plane)을 완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통역 역량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역사의 이중언어능력, 문화중개능력, 통번역방법론에 대한 지식, 배경지식, 인지 및 정서적 자질 등 기본적인 능력 요소를 고루 갖췄다는 전제하에 인간 통역사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 중점적인 개발이 필요한 하위 역량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며 상위 혹은 단일 역량으로서의 제안이 아님을 밝혀 둔다.

그 외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샤론 최의 통역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레이스라는 특정한 상황과 봉준호 감독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특수한 통역 사례로 샤론 최는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는 점, 봉준호 감독과 9개월 이상 함께하며 약 500회 이상의 통역을 수행했다는 점, 샤론 최 자신이 영화학도로서 영화산업과 봉준호 감독 및 관련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샤론 최의 통역 퍼포먼스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일반적인 통역 상황과 전문 통역사에게 직접 대입하고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조회 수와 댓글 수가 상관관계를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댓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조회 수가 높은 동영상을 선정하다보니 샤론 최의 통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영상상이 분석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유튜브에 게시된 샤론 최 통역 관련 동영상은 조회 수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평가 위주의 콘텐츠가 대부분으로 데이터의 편향성보다는 해당 콘텐츠와 데이터가 갖는 속성적 한계로 간주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AI 시대 기계 통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역사의 직업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인간과 기계 통역의 효과적인 협업과 조화로운 공존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AI 통역 대비 인간 통역사가 발휘할 수 있는 통역 역량 측면의 강점을 분석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는 인간 통역사가 기존에 암묵적으로 자동화하여 수행해 왔던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명시화하여 인간 통역사가 통역 현장에서 갖는 경쟁력과 필요성을 소구하고, 예비 통역사들에게는 향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통역 역량에 대한 참고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유튜브 댓글은 익명성, 대표성 부족 등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서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

만 그와 동시에 자발성에 기초한 대규모 데이터셋 확보가 가능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여론을 분석하고 관련 주제와 키워드를 도출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댓글이 갖는 분석 텍스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총 8편의 동영상에서 크롤링한 7627개의 댓글 내용을 분석하여 봉준호 감독 및 영화 기생충에 대한 댓글, 샤론 최의 외모 및 출신학교 관련 댓글, 통역과 무관한 대댓글을 통한 논쟁, 동영상 제작자에 대한 평가, 감정적 반응 등 통역과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데이터 클렌징을 진행하여 최종 3762개의 댓글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통역사 ‘샤론 최’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 인식이 아닌 샤론 최의 ‘통역’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 반응 관련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자와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일반 대중의 인식과 평가 및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통역 역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정제된 댓글 데이터셋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댓글이 갖는 텍스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중 인식 기반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앞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의 통역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능력, 주제지식, 통번역 방법론에 대한 지식, 문화중개능력 등이 보편적으로 제시되어 왔고, 통역사의 역할 변화 및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차별화를 위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며, 지금까지 주로 소통 역량의 중요성과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주연, 2021; 진실희, 2019). 본 연구는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화 및 구체화하여 통역의 실무 및 교육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바라기는 본 연구가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특화된 역량을 발견하고 AI 통역과 차별화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라며, AI 시대 인간과 기계 통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활용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권상미. (2020a).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역과 번역*, 22(2), 1-28.
- 권상미. (2020b). 새로운 주체로서의 통번역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관한 고찰: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35-62.
- 권상미. (2023a). 온라인에서의 동시 통역사 인식 연구 - 유튜브와 네이버 지식인 데이터의 내용 및 키워드 분석. *통번역학연구*, 27(1), 1-24.
- 권상미. (2023b).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과 통역 콘텐츠 분석: 유튜브(Youtube)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통역과 번역*, 25(1), 1-26.
- 권상미, 정철자. (2023c). Public perception of interpreters in South Korea: Text mining social media. *통번역학연구*, 27(3), 1-25.
- 김미경. (2023. 04. 12.). 생성AI가 불러온 직업 위기...사라질 직업 1위는 '번역가 통역사'. AI라이프경제. <https://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0>
- 김혜림. (2024). 인공지능(AI)기술의 전문통역 교육 활용 방안: 챗GPT를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26(2), 27-65.
- 박건형, 조재희, 최인준. (2017. 03. 07.). 알파고 쇼크 1년... KAIST선 'AI 전공' 몰리고, 통역사 인기 하락. ChosunBiz.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0219.html
- 배문정. (2023).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역 모드 선호도 조사: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 비교. *번역학연구*, 24(3), 591-614.
- 송민. (2017). 텍스트 마이닝. 도서출판 청람.
- 송민. (2023).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도서출판 청람.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정민. (2025. 08. 01). "AI로 대체 될 직업 1위는 통번역" ...MS, AI로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직업군 명단 공개. TVChosun.

-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8/01/2025080190189.html
이주리에, 진실희, 이준호. (2024). How are conference interpreters using technology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an analysis of Korea's case, *T&I REVIEW*, 14(1), 35-68.
- 이주리에, 이주연, 이준호, 허지운. (2025). 통역사의 AI 활용 및 인식 — 국내 통역사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T&I REVIEW*, 15(1), 7-39.
- 이주연. (2021). 통역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 한영과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1), 161-184.
- 이호준. (2025. 5. 26). “AI에 밥그릇 뺏길 줄 알았는데... 통번역 업계 오히려 더 호황”. 매일 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326952>
- 장애리. (2024). 중국의 기술보조통역훈련(CAIT) 연구 동향 고찰과 통역 교육에서의 시사점. *번역학연구*, 25(2), 99-131.
- 정호정. (2007).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진실희. (2019). 소통적 통역 역량에 관한 연구: 연설문의 명제적 발화 및 대인적 발화 의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3), 263-290.
- 진실희. (2024). 생성형 AI 활용 통역 교육 사례연구 — 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통역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3), 187-214.
- 최문선. (2018). TV통역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생방송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3), 195-224.
- 최문선. (2022). AI 기반 실시간 통역 보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원문의 숫자 정보 제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4), 9-35.
- 최문선. (2025). AI 시대의 통역 서비스 재편: 새로운 통역 유형론에 대한 시론(試論). *번역학연구*, 26(2), 169-197.
- 최원희. (2025. 04. 01.). 동영상 앱, 한국인 94% 사용...유튜브 사용시간 점유율 67%. Platum. <https://platum.kr/archives/256146>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12. 31.).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8917&link_g_homepage=F
- 홍기선. (2002). 인간 커뮤니케이션. 나남출판.

- 鄧軍濤, 許勉君, 趙田園. (2021). 人工智能時代的口譯技術前沿與口譯教育信息化 [Frontiers of interpreting technology in the AI era and the informatization of interpreter education]. *外語電化教學*, (4), 67-72.
- 孫海琴, 李可欣, 陸嘉威. (2021). 人工智能賦能語音識別與翻譯技術對同聲傳譯的影響: 實驗與啓示 [AI-empowered speech recognition and translation technology's impact on simultaneous interpreting: Experiment and insights]. *外語電化教學*, (6), 75-80.
- Albi-Mikasa, M. (2013). Developing and cultivating expert interpreter competence.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2013), 17-34.
- Cha, M., Kwak, H., Rodriguez, P., Ahn, Y. Y., & Moon, S. (2009). Analyzing the video popularity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user generated content systems.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17(5), 1357-1370.
- Fantinuoli, C. (2025). Machine interpreting. In Sabine Braun, Elena Davitti and Tomasz Korybski (eds.),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and Technology*. (pp. 209-226). Routledge.
- Guo, M., Xie, Y., Han, L., Lei, V. L. C., & Li, D. (2025). Bridging traditional and AI-assisted simultaneous interpreting: Empirical insights for curriculum desig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9. <https://doi.org/10.1080/1750399X.2025.2533007>
- Jin, S. (2017). Limitations of machine translation: Focused on the role of cognitive complements in human communicati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1(4): 167-198.
- Stassen, M. (2020. August. 05.). *88.4% of videos on YouTube generate fewer than 1,000 views*.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88-4-of-videos-on-youtube-generate-fewer-than-1000-views>
- Pöchhacker, F. (2022).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3rd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003186472>
- Tomlinson, K., Jaffe, S., Wang, W., Counts, S., & Suri, S. (2025). Working with AI: Measuring the occupational implications of generative AI. arXiv preprint arXiv:2507.07935.

Maximizing human interpreters' strengths in the AI era: A YouTube comment analysis of Sharon Choi's interpreting

Ai-li Chang (aili@ewha.ac.kr)

Department of Interpreting & Transl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encies necessary to maximize the strengths of human interpreters in the age of AI, using YouTube comments on Sharon Choi's widely acclaimed interpreting performances as the primary data source. Drawing on YouTube comments from eight interpreting videos with over one million views each, the study analyzed 3,762 comments directly related to interpreting from an initial dataset of 7,627. The study employed text mining techniques—namely, keyword frequency analysis, co-occurrence analysis, semantic network centralit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LDA)—to extract the key terms and themes related to interpreting. A qualitative analysis was then conducted to contextualize and interpret the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by highlighting three core competencies for maximizing human interpreters' strengths in the AI era: interpretive language competence, comprehens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linguistic, non-linguistic, and interpersonal).

Keywords: Interpreting competence; AI interpreting; YouTube comments; text mining; Sharon Choi

키워드: 통역 역량, AI 통역, 유튜브 댓글, 텍스트 마이닝, 샤론 최

장애리(<https://orcid.org/0009-0007-1851-1836>)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aili@ewha.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